제323회국회
(임시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9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4월16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220호)

의사일정

1. 현안보고
   가. 소치동계올림픽 성과보고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 ····· 1
   가. 소치동계올림픽 성과보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재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국회 제9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

가. 소치동계올림픽 성과보고

○위원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항 소치동계올림픽 성과보고에 대한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4소치동계올림픽에 대한 경과 및 평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동시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참고할 사항과 개선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소치동계올림픽에 우리 한국 선수단이 참여를 했고 또 선수단 참여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이후 소치동계올림픽의 개최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앞으로 좋은 모델들은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성과보고를 들은 후에 오늘 출석한 기관을 상대로 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님 나오셔서 오늘 현안보고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열린 특위에 이어 다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소치동계올림픽 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초 개막식이 열리는 시점에 맞추어 소치를 방문해서 경기장, 미디어센터, 선수촌 시설과 개막공연 등 올림픽 개최 현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소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향후 올림픽 준비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2014소치동계올림픽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소치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 참가 결과입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소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를 뺀 6개 종목에 71명의 선수와 49명의 임원이 참가해서 역대

최다 종목, 최다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1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쪽입니다.

소치올림픽에 대한 평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경기력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치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는 13개 금메달 중 7개가 귀화선수가 획득한 메달일 정도로 취약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20년 만에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13개 출전종목 중 빙상 종목에서만 메달을 획득했으나 모굴스키에서 최초로 결선에 진출하는 한편,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보이며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소치올림픽 경기장 시설 및 대회 운영 관련입니다.

러시아는 동·하계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50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과잉투자라는 지적과 함께 선수촌 등 일부 시설에서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입니다.

대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무난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올림픽 관심도 미흡과 같은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중 스포츠정책에 대한 국내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특히 안현수 선수의 귀화와 관련하여 스포츠 공정성 확보라는 과제와 김연아 선수 경기의 편파 판정 논란 속에서 우리나라 국제스포츠 영향력 강화라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개최국의 성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계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목표 성적을 달성한 러시아의 사례를 참조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팀을 운영해서 유망선수를 조기에 선발하고 육성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선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쪽,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스포츠 의학·과학 분야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훈련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종목별 세계대회 유치·참가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시 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상종목 전용 훈련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하계시즌에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외 거점 훈련캠프를 운영해서 상시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치동계올림픽 사례를 거울삼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올림픽을 실현하겠습니다. 사후 활용을 고려해서 경기장을 건립하는 한편, 흑자 올림픽 달성을 위해 대회 운영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문체부 내에 올림픽 지원 TF를 가동해서 완벽한 대회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립 중인 경기장을 2016년 10월까지 완공해서 훈련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대회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딩센터 등 일부 경기장은 개최국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코스를 부분 준공해서 '16년 초부터 훈련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스포츠 공정성 확보 및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의 사유화, 파벌주의 등 체육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기단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대표선수 및 지도자의 선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스포츠 영향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최상위 국제스포츠기구의 임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등 국제 스포츠기구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종목별 경기 운영 대외협력관을 양성해서 종목별 경기운영규정과 최신 기술을 숙지토록 하고 신속한 오심대처교육으로 원활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치동계올림픽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특위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소치올림픽의 오륜기 사고와 같이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무관심이 대회 전체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조직위원회, 지자체는 이번 소치올림픽뿐 아니라 역대 대회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알뜰하고 실속 있는 평창올림픽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유진룡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과 그리고 또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님 그리고 김재열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치동계올림픽 참가 평가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황영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예, 말씀하십시오.

○황영철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님께 드리는 질의서에도 있는데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한 분도 안 나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강원도는 다음 회의 때 불러서 그 평가와 업무보고를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러면 다른 의사진행발언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최동익 위원 지난번에 제가 안현수 선수 사태를 언급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짚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최동익 위원 오늘 지금 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소치올림픽에 장애인올림픽이 포함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했습니다.

○최동익 위원 아니, 올림픽 자체에 장애인올림픽이 옛날에는 별도였는데 지금은 IOC가 주관하는 하나의 행사라는 것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고서에 장애인올림픽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오늘 저희한테 보고 요청을 한 건 소치올림픽에 대한……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소치올림픽에 IOC하고 IPC가 합쳐졌기 때문에 소치올림픽을 보고할 적에는 당연히 장애인올림픽이 들어가야 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있어서도 조직위원회나 모든 것이 장애인올림픽을 같이 포함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어떻게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보고가, 소치올림픽에 장애인올림픽 경기종목이나 모든 성과가 포함이 되게 돼 있는데 여기의 모든 면에서 다 빠져 있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포함시키지 못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실수가……

이번에 소치올림픽에서 장애인 종목 노메달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노메달인 것도 모르고 계시고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조차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IPC와 IOC가 합쳐진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나라가 장애인 종목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걸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원만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장애인 경기종목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무관심하고 있고 심지어 보고사항에 들어가는 것조차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니……

이게 지금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속적으로 체육정책에 있어서,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역할 그 자체를 장관님이 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가 소외시키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오늘 이 보고사항에서 답변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것은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사려 깊게 그 부분을 넣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요. 장애인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던 것은 진작에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장애인체육회장과 함께 다음서부터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안현수 선수 문제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뭔가 대책을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안현수 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최동익 위원 안현수 사태가 벌어지게 됐을 때 우리나라 빙상계에서의 전체적인 문제를 주로 짚었었는데, 빙상계가 그렇게 가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문제점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안고 있었는가를 짚었거든요, 그 당시 2월 달에.

그러면 2월 이후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안현수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부처가 도대체 무슨 미스테이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짚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 일체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안현수 선수 사태에 대해서 빙상연맹의 파벌싸움이니 뭐니 이것만 계속해서 남의 탓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도·감독 정부기관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짚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전혀 사후조치를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도·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 부분을 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고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는 성남시청에서 선수단이 해산됐을 적에 안현수 선수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블락(block)을 했다라든가 이랬을 적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구조적으로 조치를 못 취한 것이 법적인 문제냐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공무원들의 문제냐, 정책적인 문제냐 이런 부분을 짚어 가지고 그러한 산하 경기단체에 문제가 있었을 적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으로 어떻게 그런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일체 진행상황에 대한 답이 지금 없으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답은 이 보고자료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도·감독권을 갖고는 있으나 개인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도·감독권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빙상연맹에서 올림픽이 끝난 후에 자체 혁신안을 발표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제가 던졌던 질문은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적으로 그 경기단체들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어떻게 그런 방안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지, 사태가 다 일어난 다음에 너희들 자체 개혁해라, 개혁해라 이러한 사후약방문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안현수 선수 사태를 봤을 때 이런 경기단체들의……

지금도 심판판정 비리니 아니면 선수 선정에 있어서의 비리니 모든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본질적인 체육정책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던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래서 지금 동계종목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동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동계종목 전반이 아니고요, 이러한 체육단체들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던 거지 문제가 발생했던 그 사건에 대한, 그 일부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본질적인 체육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선제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여쭤 봤던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아무튼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 선제적으로 더욱 열심히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생중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시간 7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충분히 인식하셔 가지고 7분 동안에 효율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宰榮 委員 새누리당 이재영입니다.

일단 올림픽을 통해서 메달의 색깔에 관련 없이 8개의 굉장히 소중한 메달을 땄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노력한 정부 그리고 특히 선수들한테 참 수고 많았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감사합니다.

○李宰榮 委員 김정행 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컬링팀 이번에 인기 아주 많았었지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귀국하자마자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예.

○李宰榮 委員 성추행 얘기 그리고 기부금을 또 강요당하고, 그래서 단체적으로 사표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결과적으로는 그 선수들은 복귀했고 또 코치는 해촉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폭행·폭언·성추행 이게 꼭 컬링팀에게만 국한돼 있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계 전체에 어찌 보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지금까지 체육계 전반에 대해서 심판의 문제, 성폭행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컬링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고소를 해 놓은 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건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대한체육회에서는 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스포츠인권익센터를 지금 설치해서 선수 폭력 그리고 인권침해 행위를 추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

○李宰榮 委員 권익센터가 언제 생겼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권익센터가 생긴 건 2009년에 생긴 걸로……

○李宰榮 委員 그러면 벌써 5년이 됐네요?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예.

○李宰榮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컬링팀은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 포인트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예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점을 몇 번 지적을 한 건데……

그러면 그동안 교육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매번 답변이 회장님뿐만 아니고 예전의 회장님들도 좀 유사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장관님도, 예전 장관님들도 정부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답해 주시는 그 답변이 예전과 유사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여태껏 체육계가 너무 문제의식 없이 지나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체육 지도자들의 자질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체육계에서 성추행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성추행이 된다든가 이런 의식조차도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하는 게 전국의 코치들한테 가령 이런 행동을 하면 이건 성추행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매뉴얼로 만들어 갖고 모든 코치들이 그리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선수들도 권위적인 풍토에서는 자기네들이 성추행을 당하는 것인지조차도 의식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도 교육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성추

행을 당한 것이니까 이건 신고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그 교육을 지금 전국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 아무튼 꾸준히 이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李宰榮 委員 하여튼 성추행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폭언·폭행 이런 것에 대해 '가나다'도 모르고 지내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방안들 이것들이 좀 잘 진행돼서 이런 얘기는 서서히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주 단호하게 저희가 처벌을 합니다.

○李宰榮 委員 그리고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李宰榮 委員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58건 정도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두 달밖에 안 됐는데 58건이면 꽤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스포츠계의 어떤 불공정 이런 것들을 신고를 받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신고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신고된 걸 갖다 바로바로 분류해서 수사 의뢰할 건 수사 의뢰를 하고 저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李宰榮 委員 그 지속적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좀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李宰榮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서에 다가오는 평창올림픽을 경제올림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李宰榮 委員 보면 평화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나머지 3개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큰 비전도 하나 제시를 했더라고요. 새로운 지평, 뉴호라이즌스(new horizons)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네요. 좀 개념이 모호한 것 같아서, 올림픽이라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비전이, 철학이 잘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호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장관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우선 기본적으로 새로운 지평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평화의 메시지를 심고……

○李宰榮 委員 평화에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북한 올림픽선수들이 참여를 안 한다면 평화올림픽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방안도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올림픽 참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호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다음에 문화올림픽과 환경올림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를 널리 알리는, 그럼으로써 새로운 세계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스포츠계에서는 동계스포츠가 지금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동계종목이 약한 나라들에 대한 선수육성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李宰榮 委員 개념은 좀 짧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모호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재윤 예, 안민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먼저 위원장님이나 어떤 분이 좀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가 소치올림픽 끝나고 소치올림픽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8년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인가가 궁극적인 목

표인데 왜 이 자리에 평창올림픽위원장 내지는 관계자가 안 나와 계신지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하셨습니까, 황 위원님이?

○황영철 위원 제가 했습니다. 충분히 해명이 됐어요.

○안민석 위원 해명이 되었습니까?

○황영철 위원 예.

○안민석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따로 한번 물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장관께서 오늘 이 위원회 하기 전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소치올림픽 출전했던 감독이 2005년에 태릉선수촌에서 여자선수들을 폭행해서 사퇴한 그분이 다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안민석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사실을 알았냐고 했을 때 장관께서 출국하기 전에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관께서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는 게 마땅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폭행을 가했던 그 지도자가 다시 감독으로 가는 것을 주무장관이 알고서도 묵인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과거 일들이 나왔는데, 문제가 불거졌는데 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제발 정부가 불공정 표현 쓰지 마세요. 정말 역겨워요. 아세요? 53개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중에서 10명이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역대 대한체육회 회장들 분석해 보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황영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아니잖아요. 그런 건 질의 시간에 하시든지……

○안민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니까요……

○황영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의 시간에 하세요.

○안민석 위원 제발 좀 끼어들기 하지 마세요, 점잖지 않게.

○황영철 위원 끼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아니잖아요.

○안민석 위원 말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재윤 안민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그래서 정부 스스로가 이렇게 불공정행위를 앞장서서 하고서 불공정이라는 표현을 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재윤 안민석 위원님!

○안민석 위원 불공정이라는 표현을 쓰시려고 그러면 10개 종목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이것부터 해소하고서 불공정이라는 단어를 쓰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안민석 위원님!

○안민석 위원 그리고 위원이 이야기하는 데 끼어드는……

○황영철 위원 위원이 제대로 지켜서 회의를 해야지 저희들도 인정하지요.

○안민석 위원 그거는 제 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황영철 위원 어떻게 끝나고 합니까, 그거를?

○안민석 위원 무례하게, 무리하게 그렇게……

○황영철 위원 첫 번째 의사진행은 맞아요. 두 번째는 아닙니다.

○안민석 위원 무리하게 고함지르지 마세요.

○황영철 위원 고함지를 만하지요, 거기다 덧붙여서 여당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안민석 위원 그리고 말씀하실 것 있으면 위원 발언 마치고 발언 기회를 얻어서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윤 안민석 위원님!

○안민석 위원 여당위원이 그렇게 예의 없이 하셔서 되겠어요?

○황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잘 정리 좀 해 주세요.

○안민석 위원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 예의를 안 지킨 사람은 안민석 위원이에요.

○안민석 위원 발언을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김재윤 안민석 위원님 그리고 황영철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현안 문제는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영철 위원님 뜻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니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질의 시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러면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순서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러면 안민석 위원님

이 질의를 김현 위원님하고 바꿔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안민석 위원 오늘 여러 가지 성과 보고자료를 봤는데 이게 너무나 경기력 위주로만 돼 있어서 과연 올림픽이 이게 다인가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요.

특히 이제 정부나 조직위원회나 대한체육회에서 평창올림픽 단일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남북교류, 그 속에서 스포츠교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마치 먹튀 정부도 아니고 말입니다 말씀만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후속적인 조치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에 평창올림픽에서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중에 가장 핵심이 단일팀 구성 아니겠습니까?

북경올림픽에서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안민석 위원 그렇지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때는 시작하기 1년 전에 시작을 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성과를 못 내겠더라고요. 지금 해야지 이게 촉박하지 않거든요. 저는 물밑에서부터 이 문제를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남북 스포츠 교류가 활발히 돼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가 동의하는 명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단일팀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팀 구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작을 누가 하겠어요? 주무부처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네 꼬마들이 먼저 시작을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런 얘기를 정부 내에서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리고 IOC 규정 때문에 북에서는 경기를 할 수 없지만 사전 문화행사는 금강산 정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중에 때가 돼 가지고 후닥닥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이렇게 경기력 외적인 부분에서 올림픽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무부처가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희망컨대 2018년에는 평양에서도 단일 응원을 할 수 있을, 또 우리 남한에서 단일 응원팀이 평양에 가서 단일 응원을 할 수 있을 그런 남북의 여건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조심스럽게 하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연맹 규정에 의해서 평창올림픽 하기 전에 두 종목을 2년 전에 프레올림픽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안민석 위원 이게 프레경기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종목은 아직 안 정했고요. 지금 대회 준비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2015년, 내년 12월까지 국제연맹에서 경기장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내년 12월까지 두 종목 인가받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잘 아시다시피 썰매장인데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1년 8개월 남은 동안에 경기장 완공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썰매장도 16년 초에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슬로프들이나 경기장들은 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스피드 경기 준비하는 데 헬프(help)가, 그 헬프라는 게 최상급의 코스 스키를 탈 줄 알고 스키경기 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요원들인데 이 200명을 확보하는 게 지금 현 단계로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한 무리가 따른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님 지적

이 맞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전에도 보고한 것처럼 각 경기종목당 전문요원들을 지금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봅슬레이 같은 경우에 16년 2월 전에 경기장 인증 받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16년 중에 끝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희가 16년 겨울서부터는 봅슬레이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장 공사일정을 당기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현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차질 없이 다 잘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 이야기는 현장 전문가들의 우려는 기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기우라기보다는 그렇게 저희가 노력……

원래 계획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사일정이 좀 늦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모두들 소치를 갔다 오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경기장을 빨리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재부 쪽에도 예산 신청을 서둘러서 했고 경기장을 빨리 만드는 걸로 지금 공사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큰 걱정 하시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본 위원이 한 열 차례에 걸쳐서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저 혼자만의 우려가 아니라고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안민석 위원 지난해에 위원님들하고 외국을 다녀 본 결과도 그렇고 또 전문가들 모든 이야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활용이 참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강원도 쪽에서 사후활용 계획 나온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현실성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에서도 이제는 강원도 쪽에만 그것을 맡겨 놓을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처음에 경기장을 짓는 시점서부터 사후활용을 생각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설계변경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계획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제 발언시간 30초만 좀 더 양해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윤 예.

○안민석 위원 제가 아까 장관님께 말씀드린, 더 이상 불공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잘 따져 보십시오. 53개 산하단체 회장 중에서 열 분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이에요.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단체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정말 불공정한 겁니다.

왜냐? 태권도 발차기 한 번 못 휘두르는 분이 태권도연맹 회장을 하시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종목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들이 이런 회장을 하는 게,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한 건데 정부 스스로가 이것을 방치하고 현장의 회장들을 불공정이라는 이야기로, 부조리라는 이야기로 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 스스로가 공정한 입장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경북 문경·예천 출신 이한성 위원입니다.

내년 10월 달에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리는 지역 출신입니다. 그것에 저도 각별히 관심이 많은데, 이번 소치동계올림픽에서는 시설 문제에서 아주 웃음이 나올 정도의 미비점이 노출되어 가지고 비난을 받았습니다마는 돈을 500억 달러나 들이고도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은 러시아도 가슴이 참 답답할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마 공사진척이 늦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어디가 불편한 것을 시간이 있어서 느긋하게 점검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경기장 시설 자체는 기능상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문제……

○이한성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손잡이가 없는 문이 있었다든지 칸막이가 없는 화장실이 있었다든지 그것은 설계 자체가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경기장 시설이 아니라 선수촌과 부대시설들에서 문제가……

○이한성 위원 어쨌든 간에 선수촌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선수라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건데 칸막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샤워장에 물이 안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한성 위원 샤워장 물 안 나오는 것보다는 칸막이 없는 화장실이 좀 더 우스워 보입니다.

설계로 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글쎄요.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화장실에 칸막이는 다 돼 있어서……

○이한성 위원 시간을 좀, 미리 공사를 완공해 놓고 점검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에서도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도 시설이 미리미리 진척되어야 그 뒤에 한 서너 달 정도 점검을 하면 문제점이 나올 테니까, 실제 예비가동도 해 보고 이런 시험가동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보다는 돈을 덜 들인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마당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러시아의 소치 시설이 운영비만 연간 20억 달러, 한 2조 원 정도 든다고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한 5조 정도 드는 것으로……

○이한성 위원 5조 정도 들어요? 여기 보니까 20억 달러 정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경기장 시설만 2조 정도……

○이한성 위원 유지비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이한성 위원 유지비용이 그렇게 드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비용이 한 1조 3000 정도……

○이한성 위원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유지하는 시설 유지비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시설 유지비용은 아직 경기장이 다 안 지어졌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은 안 됩니다마는……

○이한성 위원 그것도 산출을 해야 되지요. 지금부터 산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산출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무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이한성 위원 사실 이것도 미리 잡아 놔야 됩니다.

그리고 안민석 위원님과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데서는 체육관 시설을 칸막이를 해서 생활체육으로 쓰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연간 한 700달러, 70만 원 정도 되지요. 그 정도 회비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체육관시설 이용료, 회원가입비로 한 70만 원, 100만 원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가 몽땅 유지비로 그냥 들어가고 마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약간 문화가 다르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맞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아주 억울한 판정패를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보고에 '국내 지적사항 관련'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김연아 선수 판정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아무런 반향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펄펄 뛰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렇지는 않고 저는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최근에 언론에도 국제빙상연맹회장이 물러나야 된다는 서명이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이것은 제대로 따져야 되고 우리가 현재 국제 스포츠계에서 지도력이 약하기는 합니다마는 억울한 점이 없도록 이의신청 절차는 제대로 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김연아 선수도 억울하게 되었고, 또 옆에 계시지만 빙상경기연맹에서 안현수 선수를 러시아로 보내는 바람에 금메달을 3개나 안겨 주고 우리는 참패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선수들을 양성하는 과정이 너무 조선시대 가부장적 도제식, 계파식 양성을 하는 바람에 성추행을 해도 아무도 모르고 여자 선수들이 감독이나 코치한테 온갖 빨래를 다해서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

고……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당장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한성 위원 이게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 많이 써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게 당장 제일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식으로 남자 뒷바라지는 여자가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거의 벌거벗은 방에 그냥 빨래 가지러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것 참 부끄럽고, 기본 양식이 있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것 고쳐야 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한성 위원 빨리 고쳐야 되고 다른 모든 문제보다도 이런 것이 선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맞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지금은 바로 앞에 닥친 평창동계올림픽 문제가 제일 거론됩니다마는 우리 문경으로서는 내년도에 치러질 세계군인체육대회, 거기에 대해서도 장관님으로서 이것을 너무 국방부 행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좀 할애해서 이 대회가 망신스럽게 되지 않도록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기재부와 국방부와 상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한성 위원 그것의 진행 상황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은 일단 국방부 쪽에서 국고를 확보해 가지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기재부와 상의하고 저희 쪽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 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소치 성적과 관련해서 체육회장하고 그리고 안현수, 빅토르 안에 대한 문제점 빙상경기연맹한테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듣고 장관의 입장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미에요.

김정행 체육회장님, 작년 6월 달에 국회 이 자리에서 제가 목표 설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 있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예.

○백재현 위원 그때 7위를 목표로 하겠다. 이미 우리가 밴쿠버에서 5위를 기록해서 목표를 4위 내지 5위는 잡아야 그나마도 7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7위 정도 목표를 잡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3위를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원래 우리가 금메달 4개를 목표로 잡았는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백재현 위원 어쨌든 그런 안일한 자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한체육회가 의욕적으로 뭔가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 왔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죄송합니다.

○백재현 위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지금 현재 종합 4위에 목표를 두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88하계올림픽에도 우리가 4위는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목표는 설정하고 차질 없이 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설상종목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스키장이 이제 있을 만큼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동계올림픽 모자라는 부분, 쉽게 말해서 각 국의 유능한 감독·코치를 국내에 데려와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백재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네덜란드가 강했던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그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냉철한 반성이 있고 분석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우선 네덜란드는 경기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백재현 위원 어쨌든 간에 그걸 잘했다, 못했다 뭐가 딱 문제가 있다고 할 얘기야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피드에서 이제 네덜란드한테 완전히 밀리는 형상을 보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4년 후에도 똑같은 우

를 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고 종목별로 선수 관리를 제대로 해서 2018년 우리가 주관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내야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세워 줘야 됩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다음에 빙상연맹 김재열 회장님, 빅토르 안, 안현수 선수에 대해서 아쉬움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안현수 선수 인터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믿어 주는 곳에서 마음 편히 운동하고 싶었었다' 이게 옮겨 간 동기의 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둘러 표현은 했지만, 이것을 회장님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주고 거기에 메달을 3개나 옮겨 주고 우리가 13위를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내가 보기에 빙상연맹의 역할이었다고 보여요, 그동안의 선수 관리. 빙상연맹에 대한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우선 안현수 선수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발 과정을 보면 안현수 선수도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본인이 소속됐던 팀이 해체가 됐고 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더 하고 싶어서 귀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건 에둘러 표현한 것이지만 '믿어 주는 곳에서 마음 편히 운동하고 싶었었다' 저는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빙상계뿐만 아니라 많은 경기단체가 지배구조에 문제점이 있고 그 조직을 사유화하거나 파벌주의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기가 계속 어려움이 있고, 물론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뀐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좀 더 폐쇄적인 경기단체의 운영이, 사유화된 경기단체의 운영이 그리고 파벌주의에 의한 운영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과감하게. 특히 빙상경기에는 더욱더 심한 것이 이런 사례에서 드러났다고 보이니까 그러한 대책들을 대한체육계 입장에서나 특히 빙상종목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빙상연맹의 과거 파벌주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다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 최근에 빙상연맹에서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믿고 맡겨 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하여튼 이번에 우리 성적을 목표로 세웠던 부분이나 안현수 선수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우리가 주관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적정 종합순위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핵심은 북한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북한과 함께할 수 있는 올림픽만이 의미가 있고 평화올림픽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88하계올림픽 때를 되돌아보면 그때 모스크바 대회라든가 그 이전에 대립했던 관계가 88올림픽을 통해서 해결됐던 것처럼, 이번에 소치올림픽에는 오바마도 안 가고 프랑스도 안 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냉전체제로 되돌아가는 어떤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해소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일이라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맞습니다.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아까 이재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평화올림픽의 의미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말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북한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수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걔들과 하는 게임을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1년 전에 또는 6개월 전에 시작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3년 전 4년 전부터, 이제 만 4년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남아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어느 분야보다도 비정치적인 분야인 체육에서 남북 간의 교류의 틀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

기를 바랍니다.

덧붙일 말씀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군사적인 상황 때문에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기본적으로 문이 열리면 북한의 어떤 올림픽 참가라든가 이런 문제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성 위원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수치를 한 10분의 1씩 디스카운트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소치에서 준비한 게 약 한 54조를 썼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한 13조 정도 그 정도 지금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수치에서 약간 차질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정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횡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위원입니다.

소치올림픽 마치고 나서 장관님이나 또 체육회장님 또 조직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소치올림픽의 결과들을 보고 평가하고 이런 자리들이 죽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렇게 해서 소치, 바로 직전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또 배우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황영철 위원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소치올림픽 소치와 또 우리 평창·강릉과 큰 차이 중의 하나가 날씨 차이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황영철 위원 사실은 소치는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평지 해안지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황영철 위원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평창·강릉 지역은 겨울 같은 시기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릉 지역에는 같은 시기에 대설이 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황영철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이렇게 대설이 내릴 경우를 예상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것 준비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철저히 잘 준비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황영철 위원 특히 강원도 또 평창·강릉과 협조해서 이런 예방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황영철 위원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경제 올림픽을 하겠다고 하는데 경제 올림픽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배후도시에서의 경제 활성화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황영철 위원 소치의 경우에서도, 제가 직접 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치 배후에 있는 도시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평가에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 주변 도시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서 올림픽이 치러지는 도시는 물론이고 그 배후에 있는 도시들의 역할 또 배후에 있는 도시들을 문화 올림픽과 연결지어서 훌륭한 역할들을 함께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홀히 하면 간과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결했으면 좋겠다.

소치에 대한 평가 중의 하나가, 경기와 관련된 볼거리는 많았지만 그러나 또 이외의 볼거리가

좀 약한 측면도 있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배후도시에 충분한 한국적 볼거리·먹거리들을 마련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지난번에 소치 끝나고 나서 총리를 모시고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다 모여 가지고 소치올림픽에 대한 평가와 준비를 계획했습니다. 그때 황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배후도시를 잘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황영철 위원 예, 그래요. 특히 그 배후도시의 중심에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계시거든요, 물론 개최지도 있습니다마는. 함께 많은 고민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제가 소치올림픽을 보면서 과연 러시아가 소치올림픽을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러시아가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김연아 판정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것은 경기력 향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지 공정성을 해친 상태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황영철 위원 러시아가 1위를 했어요. 1위를 했지만 편파 판정으로 1위를 했다는 그런 오명을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올림픽을 유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유형의 성과물도 있지만 무형의 성과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올림픽의 유치가 국격을 굉장히 상승시켜 주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평창동계올림픽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 강원도와 평창·강릉에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염려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국적 이기주의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이렇게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메달 하나 더 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황영철 위원 지금 장관님의 업무보고에서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랬는데 이것 국내 환경이에요. 국내 환경에서도 중요하지만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국제 스포츠계의 공정성 확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국격과 연결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많이 따서 좋은 성적 올리려고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공정성을 해치는 편파 판정을 조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맞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렇게 해서 메달 더 딴들 뭐하겠습니까?

러시아는 그런 판정으로 인해서 푸틴도 사실은 굉장히 명예를 실추당했고 러시아도 명예를 실추당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스포츠계 내에서 아니면 정부 부처 내에서 말씀대로 지난 소치올림픽에서의 결과가 부진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에서는 뭔가 좋은 성적을 내야지 하는 과욕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해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는 아주 명심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공정한 심판 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고요. 하여튼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들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국제 스포츠계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더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마는 교통 수송체계 문제라든지 또 IT 체계 문제 이런 부분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니까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IT 강국으로서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준비들 이런 것들에 좀 관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셔서, 우

리 위원회가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함께 노력해서 정말 평창동계올림픽이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진도에서 여객선이 침몰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안전하게 한 분의 희생도 없이 구조가 다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치올림픽이 진행 중일 때 안현수 선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파벌주의, 줄 세우기, 심판 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린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된다' 이것이……

소치에 가서 현지에서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의 이 발언이 과연 적절했느냐, 현장에 있는 선수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글쎄, 일부에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현지에서는 선수들은 큰 뭐, 거의 영향이 없었다는…… 본인들이……

○김현 위원 그렇게 장관님이 안일하게 생각하시니까 대통령의 업무보고 때 이런 보고가 간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모든 뉴스가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현 위원 선수들이 파벌과 심판 부정으로, 줄 세우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혹여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줄 세우기로 금메달을 받아서 여기 선수로 확정돼서 왔을 것이다라는 세간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린 학생들이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게 이제……

○김현 위원 장관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가서 느낀 점은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실감했기 때문에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적어도 국제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선수들을 향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현수 선수의 문제는 그것이 그 이유인지 아닌지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조용히 보고를 드려서, 전후좌우 맥락을 살펴보고 나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또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문광부장관실에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전혀 사전에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옳지 않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어느 경우든 직언을 해야 된다는 충고에 대해서는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선수들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명백히요.

그리고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선수 구타, 성추행 문제, 아까 장관께서 '처벌을 하겠다'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어떤 식의 처벌이 가능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그 처벌은 본인이 한 일에 따라서 적정한 비례원칙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저희 원칙은 굉장히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최대의 강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원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수사기관도 아니고 조사기관이 아닌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무슨 처벌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가령 처벌이라는 것은……

○김현 위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지원을 줄이겠다, 끊겠다 또는 코치나 감독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영구 추방을 하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이 모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서 소치에서 성적이 부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라고 봅니다. 선수들의 심리를

잘 다독이고……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으로 선수들이 뛰게 해도 거기가 홈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데요, 심리전에서 일단은 사기를 꺾어 놓고 선수들을 뛰게 한 겁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부의 가장…… 이번 순위에서 우리가 더 할 수 있었는데도 못 했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지요. 그러니까 감독이 지금 선수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무고를 또 한 것 아닙니까? 성추행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고로 제소했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또 그 무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고발했을 때, 고소했을 때, 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감독이나 코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요. 무고한 것은 개인이 무고한 것이니까 나랑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 선수들이 추행을 당해도, 성적 수치심을 느껴도 그것을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 사후약방문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단도리를 잘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정말 잘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이 상임위가, 물론 본 상임위에 가면 더 제기가 많이 되겠지만 제가 가서 보고 느낀 소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서와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은 안 하겠지만, 특히 이 자료에 보면, 제가 기우일 수도 있겠는데 '경기장 시설 및 대회 운영 관련'—2페이지요—러시아 측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이것 외교적 결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지적할 수 있고 사석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소치올림픽에 대한 성과 보고에 그 나라에서 시설과 대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과잉 투자했다', '문제점이 노출됐다', '시민들의 관심도 미흡했다' 이런 식으로 단정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외교적인 결례 또는 객관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위원님 지적……

○김현 위원 저는 소치에 가서 보면서 최상의 조건의 최적지를 택해서 굉장히 성공한 대회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 관광객도 또는 그 관람하러 온 사람들한테 다양한 볼거리와 이것을 제공한, 산과 강과 바다, 휴양지가 어우러진 최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소치 갔던 의원들은 외려 우리 대회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가기 전보다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함도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쪽에서 배워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고 준비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 소치동계올림픽 성과 보고는 우리가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그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와 또 소치에서 올림픽을 치른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좋았던가 어떤 부분이 나빴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소치올림픽을 다 보셨을 건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평창에 이런 부분은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저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들을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보고서에도 밝힌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판정 시비는 있었지만 원활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시설 준비도 잘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과잉 투자된 것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 왔던 모든 외국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한국은 그렇게 준비하지 마라'라는 그런 충고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편파 판정 문제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은희 위원 우리가 소치올림픽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우리 평창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제가 국제경기대회 정보시스템 효율적인 개발·관리 체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권은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노라고 했는데요.

일단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정보시스템을 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대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인천아시안게임이 이번에 끝나면 또 이 정보시스템은 인천에서 소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U대회도 광주에서 소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지적에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의미는 경기가 다 끝났는데 그것을 굳이 유지·관리하면서 그것을 갖고 있을……

○권은희 위원 일단은 지자체가 이것을 소유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일단은 자기네들이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요.

○권은희 위원 그 투자가 그러면 지자체의 돈입니까? 사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자체가 이것을 그냥 갖고 사장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T 전문가들이 서로 거기에 대해 하는 얘기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 질문을 할 때도 '그전에 U대회하고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이렇게 공동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한 것도 제가 살펴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3일 날 또 문체부에서 인천조직위, 광주조직위, 쌍용정보통신, SK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관련해 가지고 공동 활용 방안 협의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요, 쌍용정보통신이나 SK 등을 전문가로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수주받아서 개발하는 업체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이것은 따로따로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회의를 왜 두 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맞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정부기관에도 전문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기관을 꼭 참여시켜서 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각 세계대회의 정보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고 하는 방안들을 한번 다시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 지적하신 게 사실은 저희는 착안을 못 했던 문제점들인데 위원님께서 그것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말 깊이 공감하고 지금 보다 심도 있게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지금 지난 2013년 8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체육단체들 특별감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체육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은 이때 감사를 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때 워낙 체육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가령 성추행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면 뭐 감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좀 더 철저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여자 컬링 선수들이 이런 감사가 끝나고 대회가 끝나고 3월 23일 날 이렇게 사표를 내고 했었는데요, 이런 일들을 할 때 저는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정부 부처가 작은 것들이라도 그렇게 하는, 이제 일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코치하고 감독 임명을 할 때 서약서 받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러니까 성추행에 대한 뭐 그런……

○권은희 위원 윤리적인…… 예, 성추행 포함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약서 받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예, 받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은희 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서약서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평창조직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서 관계자들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장관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돼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개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에도 북한선수단의 참가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장관은 북한선수단, 북한 정부로부터 또 북한체육회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비공식적인 통로로 참가 의사를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참가신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참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게 지금 4월이고 말이지요, 다음 국회에 가 봐야 6월이니까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올 텐데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참가신청을 저쪽이 하고 있지를 않는 것인지 이쪽에서 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저쪽에서 안 한 겁니다.

○윤호중 위원 그것 왜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아시안게임조차도 참가가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2018년, 4년 뒤 올림픽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회에서부터 평화아시안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북한이 참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윤호중 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신청해 주기를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라서 저희가 뭐 정확하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 생각에, 엔트리) 마감이 8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시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윤호중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평가 항목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대회 경기력 관련'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가 종합 1위를 했는데 그중에 귀화선수가 13개 중 7개, 그러니까 반 이상이 귀화선수다. 이것 우리 경기력 평가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귀화선수 데려다가 메달 더 따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귀화선수 없는 우리나라가 3개 금메달 딴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의미는, 그냥 사

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윤호중 위원 아니, 이것 평가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사실을 늘어놓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의미는 동계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하는……

○윤호중 위원 집중 투자했다,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것 부러워서 평가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빅토르 안, 안현수 선수를 귀화 대상으로…… 이렇게 놓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써놓는 게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당시에 '파벌주의 또 줄 세우기 이런 관행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체육계 또 체육행정에 있어서 부상선수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부상선수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상에서 완치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훈련에 돌입을 하고 무리하게 경기에 출전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재기 불능의 선수가 되어 버린 그런 상태에서 선수가 절치부심 해 가지고 다시 경기력을 회복했는데 그 선수가 현역으로 다시 돌아오지를 못 하게 되니까 결국 외국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이런 선수의 인권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고, 부상선수들을 선수 중심으로 잘 살려 나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실적 위주, 성적 위주 이런 식으로 선수를 내몰다 보니까 선수가 결국은 강제로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었단 말이지요.

이것 말이지요, 무슨 체육계 파벌주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 심각한 것 아는데 파벌주의로 대충 치워버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체육계가 우리 선수들을 얼마나 선수 입장에서 보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지금 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모두, 저희 문체부를 비롯해 가지고 다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빙상연맹에서 그 개선 계획에 지금 부상선수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갖다가 달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리고 빙상연맹회장 와 계신데요. 특히 빙상계에서 이런 선수의 인권 문제, 성추행 문제라든가 폭행, 또 기부 강요라든가, 경직된 조직문화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 교육을 조금 더 확실히 해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김연아 선수에 대한 판정 ISU 국제빙상연맹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지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예.

○윤호중 위원 지금 제소했습니까?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예,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언제 했습니까?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4월 10일 날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4월 10일?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예.

○윤호중 위원 이게 뒤늦게, 당시에 올림픽대회 중에는 제소조차 안 하다가 국내에 돌아와서 한 달여 지난 뒤에 이렇게 제소를 하게 됐는데 지금 ISU에 제소한 것이 어떤 사유로 제소를 했습니까?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일단 저희가 보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점을 ISU 쪽에 공식적으로 컴플레인(complain)을 한 게 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냥 컴플레인이에요, 아니면 공식 제소입니까?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공식 제소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컴플레인으로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호중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요.

징계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서만 제소를 할 수 있지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제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예.

○윤호중 위원 그것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한 겁니까?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그것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 ISU 규정을 여러 번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또 ISU 쪽에 저희 의사표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빙상 전문가들 그리고 변호사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판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할 수가……

○윤호중 위원 뒤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판정에 대해서는 얘기조차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ISU 규정상 심판이 어떻게 점수를 매겼는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윤호중 위원님 필요하시면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께서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장관께서 '먹튀 정부'라고 하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장관께서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먹튀 정부로서' 그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거나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북한팀의 올림픽 참가를 비롯해서 아시안게임 등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적극 환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참여 방법이 공동팀을 뭐 단일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 그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아까 드렸고요. 올림픽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위원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동안에 쓰신 표현, 아까 가령 안민석 위원님께서는 '먹튀'라는 표현이나 '역겹다'라는 표현을 쓰신 게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님들께 굳이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서로 표현하는 데에서의 어떤 적정성 여부는 좀 생각을 하고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 꼭 일일이 제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서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기선 위원 다음에, 소치올림픽을 우리가 다 소중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준비하자고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기선 위원 특히 경제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소치가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과잉 투자 문제가 이게 크게 언론으로부터 보도가 되면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그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지금 준비하면서 장관께서는 과잉 투자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직은 지금 경기장 시설이나 숙소 시설들이 건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잉 투자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과잉 투자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그것은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인터넷을 보면 '소치올림픽 이후 사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다 밀어버린 황무지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소치가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 가까이 그렇게 직간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이제 소치의 6분의 1 수준인 12조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원주-강릉 간 철도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기본적인, 12조 중에서도 꼭 필요한…… 이것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SOC 부분 또 교통망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평창이 혹시 과잉투자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분명히 국민들한테 잘 알려 주시고 평창은 걱정하지 마시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기선 위원 예를 들면 비교적 여러 가지 기존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는 런던도 지난번에 약 16조 원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경,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37조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그거 하는 데 약 20조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에 비교하면 평창 현재 약 12조 정도 가지고, 참으로 일단 전체 규모상으로는, 올림픽을 치르는 전체의 예산 규모로는 상당히 적절하게 가고 있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도록……

○김기선 위원 그리고 특히 경기장이 예산 낭비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이스하키 경기장 강릉에서 개최하고 나서 원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기선 위원 그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정부와 조직위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아이스하키 경기장 이전하는 것은 원주시에서 시장이 공개적으로 '아이스하키 경기장 그거 지어 가지고 이전하는 비용 그거 엄청난 낭비 아니냐' 이것을 공식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전할 필요 없이 이전 비용을 원주로 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사실 짓는 비용이나 이전하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강릉에다 지었다가 그것을 뜯어서 다시 원주로 옮기는 것의 적정성 여부는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강원도 내에서 강릉이냐 원주냐, 그 돈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그 부분은 강원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선 위원 장관님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금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기선 위원 아주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전 비용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약 1200억, 지어 가지고 이전 비용이 약 570억 정도 이렇게 이전하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편리한 모듈러식 공법으로 설계가 된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조직위원회, 강원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강원도민들, 원주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저는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신중하고 신속하게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것을 처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표해 가지고 확정 발표할 때 그런 것 다 감안해 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와서 다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혼선과 또 해당 지역 시민이나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장 김재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염동열

위원입니다.

저도 소치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공사가 한창일 때 다녀왔고 또 이번 올림픽 기간 중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저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나름대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장관님, 소치를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었으나 과잉 정비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김정행 체육회장님!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동열 위원 저는 약간 각도를 달리하는 게요, 존경하는 김현 위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54조의 과잉 투자는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러시아는 초점을, 포인트를 54조를 투자하고 세계 속에 대국 러시아를 알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러시아 측면에서 보면 54조 투자가 그렇게 과잉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부러운 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치가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또 세계 속에 러시아를 높은 브랜드로 인식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제가 소치시라든가 또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봤었을 때 문화관광 인프라 또 여기에 대한 서비스 여기에 대한 안내 이것은 사실 제로였었어요. 그래서 갔던 모든 분들이, 물론 지역 분들이나 강원도 분들 여러 분 만나서 의논을 해보니까 '다시 오고 싶지는 않다, 다만 TV에서 봤던 화려함은 남아 있으되 곳곳에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향취 러시아의 냄새 이것은 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곳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결론을 올림픽 다녀온 이후에 우리가 평화, 환경, 경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올림픽을 추진하자고 합니다마는 너무 내실 있게 하겠다 또 경제올림픽을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평창올림픽을 위축되거나 축소되거나 또 너무 제한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3조라고 하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마는 마치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눈·코·입 다 만들어 놓고 모자 하나 씌워서 눈사람 같지 않게 보이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왕 평창올림픽을 유치를 했고 이것을 국가경쟁력으로 쓰려고 한다면 적어도 마지막 남은 모자 하나 정도는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황영철 위원이 말씀하셨던 배후도시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릴리함메르라든가 사라예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시들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향토적인 가치, 역사성 뭐 이런 것들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올림픽 이후에 밴쿠버나 소치처럼 사라지는 도시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거기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평창올림픽도 그러한 종합적인 올림픽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밝혀 주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조기 경기장을 완공하겠다 그리고 경기력을 향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맥을 잘 짚으셨습니다. 하나 우려되는 것은 경기력 향상에 있어서 다녀온 직후의 그 열기가 저는 지금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재열 단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력향상위원회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7개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종목에 관계없이 김정행 체육회장을 비롯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지금서부터 강화할 수 있는, 경기력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현재 기존의 대한체육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동계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염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김재열 단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 그렇게 나누었는데 빙상경기연맹회장이시지만 이번에 올림픽단장을 하셨고, 저는 이번에 가서 그래도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7개 경기단체장하고 그리고 여러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적어도 이런 TF팀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평창올림픽은 한국에서 하는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성공적

으로 마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관님, 제가 안 계실 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창조올림픽이라는 말씀을 좀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올림픽이 이제는 멀티다, 하나의 스포츠 제전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산업, 그 나라의 기술, 그 나라의 관광 문화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임팩트한 그런 행사가 바로 올림픽인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염동열 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올림픽이 스포츠 한 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림픽 배후도시 그리고 문화관광 상품, 기술 상품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 경쟁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정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종합적인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 그럼으로써 올림픽 이후에도 한국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다시 찾고 여러 가지 호의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문이 됐든 TF팀이 됐든 적어도 도시설계, 디자인 또 관광, 마케팅 이런 드림팀을 좀 짜서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연구 한번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염동열 위원 하나 제가 부처 간에 이런 이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번에 5대 서비스 종목이라고 해서 교육, 문화, 관광, 금융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염동열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영종도하고 송도하고 제주도가 돼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서해·남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18년 올림픽이 동해에도 열린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올림픽 배후도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삼각벨트로 하게 되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물론 이거 문화관광부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 기획재정부에서 TF팀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쯤은 올림픽 배후도시 동해에 이것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관광의 저변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림픽이라든가 측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당히 유리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신불구처럼 한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지요.

영종도나 송도는 인천공항에서 15분 거리예요. 그리고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한쪽에 치우쳐 있는 구도가 나을 것이냐, 이왕지사 올림픽 배후도시를 만들고 있는 동해에 이런 거점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보다 균형 있는 관광 개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나라가 관광 쪽에서는 서쪽으로 좀 치우쳐서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올림픽을 계기로 동쪽 개발을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배후도시특별법 등 그 조치를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리사 위원 지난번 평창특위 때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게 그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대통령께서 받는 자리에서 체육계나 기타 분야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주문을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뭐 그렇게 개선하라고……

○이에리사 위원 또한 경기인 입장에서 볼 때

대한체육회장님,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제가 대신 답변하면 다행히 최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잘못을 저지른 건 저희 기성세대들이고……

○이에리사 위원 예, 장관님 말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선수들한테는 그렇게 큰, 신세대들은 확실히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에리사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특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선수들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양심에 맹세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은.

그리고 단지, 오히려 선수들은 '우리 선수들, 우리 선생님들이 조심하겠구나' 오히려 사기 진작이 되고 기가 살면 살았지 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비리 지도자나 임원들은 긴장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명확하게 체육계가 빨리 정리돼서 재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말 1년에 몇 번 있는 업무 자리에서의 대통령 발언이 이런 데서 나오지 않도록 '사기 진작이 안 됐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절치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장님, 지금 여러 가지 체육계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지도자들의 그런 행태들에 대한 것이 언론에 많이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제가 거론은 안 하고 싶고요, 저도 체육인이고 그래서 지금 교육계도 그렇고 비리 지도자, 성추행 뭐 이런 또 공금횡령, 심판 판정에 대한 부분, 대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그 규정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몇 건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스포츠중재위원회에서도 쌍방합의 문제로 3건밖에 안 됐고……

늘상 그런 지도자들이 또는 임원들이 심판들이 되돌아오는 스포츠 현장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원인이고.

그래서 보다 더 대한체육회 내규를 강화하셔서 정말 문제가 있었던 지도자나 임원이나 심판들은 체육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장님 꼭 좀 대안을 마련해서 체육회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면서 그 작은 몇 사람의 실수 때문에 실망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예, 알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회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노력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빙상협회 회장님, 소치올림픽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부진이라는 단어가 좀 적절치 않긴 하지만 늘 우리 동계올림픽의 메달 종목은 쇼트트랙이지요. 사실 쇼트트랙이 조금 마음대로 안 되면서 우리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13위가 됐는데 회장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빙상의 부진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실력이 상향평준화 된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워낙에 네덜란드가 독주를 한 것을 저희가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빙상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서 선수 선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이에리사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빙상장도 몇 개 없는데 늘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밖에 남자 선수들이 이번에 이상하게 시합이 잘 안 풀려서, 넘어지고 하면서 시합이 잘 안 됐는데 저는 그 결과만 탓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 그 선수의 층들이 잘 하는 나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우리 상황에 맞는, 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할 수 있는 저변 확대라든지 팀 창단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더 빙상협회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서 인프라 확대를 좀 잘해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말씀인데 국가대표 지도자를 하고 나오면 개인레슨비가 갑자기 오른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개인레슨을 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30만 원 지도자가 대표단 코치에 들어갔다 나와서 100만 원이 되면 그것이 다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한 대표팀 코칭스태프로 들어

가고자 하는 무리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장님, 평창올림픽이 2011년도에 유치가 됐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유치가 되고 지금까지 우리 하계를 지탱해 오고 있는데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지금 최소한 동계 종목의 창단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아주 미약합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계도 대학도 많이 해체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남는 것은 재목입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부지런히, 특히 평창 앞두고 동계종목 또 하계종목도 점점 지금 해체되어 가고 있고 실업팀의 경우도 한 240개 이상이 해체가 됐고 창단은 별로, 제가 볼 때 20개도 안 될 겁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체육회가 좀 더, 결국은 팀이 많아야 경쟁력이 생겨서 선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그렇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래서 팀이 많이 창단될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 좀 분발해 주시고요.

체육회는 창단 현황, 그러니까 2011년도 평창 유치 이후의 동계종목, 초등학교부터 실업팀까지 창단 현황 또 해체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지도자의 수당이 직장 있는 사람은 120만 원, 직장이 없는 사람은 70만 원, 선수는 1만 원, 이렇게 수당이 인상됐다고 나왔습니다.

장관님, 직장이 있는 사람이 적게 받고 직장이 없는 사람이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사실 이것 제가 선수촌장 때 만든 제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직장이 있는 지도자가 120만 원 여기 상향 조정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이 업무보고에 보면. 직장이 없는 사람은 70만 원, 선수는 1만 원 인상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것은 인상액만 얘기를 한……

○이에리사 위원 예, 인상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러니까 원래 베이스, 원래 금액에 인상액을 하면 아마……

○이에리사 위원 추가인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장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직장 있는 선생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원래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그만큼만 인상이 되어도 여전히 직장이……

○이에리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상의 폭이 직장이 있는 지도자는 120만 원이 올랐고 직장이 없는 지도자는 70만 원이 올랐고 선수는 1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는 사람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직장 있는 사람이 120만 원 올랐다라는 게 어떤 근거인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총액으로는 직장이 있는 사람은 33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올라 가지고 450만 원이 된 거고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430만 원에서 70만 원이 올라 가지고 5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500만 원 받는 거고……

○이에리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애초에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같이 올라가야지, 만약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120만 원이 되면 없는 사람도 120만 원 올려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군데 월급 받는 사람보다 한 군데 받는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올바른 지도자가 현장에서 소신껏 든든하게 지도할 수 있어야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늘 월급에 연연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우리나라 스포츠를 뒷걸음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꼭 배려하셔서 신경을 좀 써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무튼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에리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재현 위원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부족한 시간으로 못한 질의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장관님, 소치동계올림픽에 54조 투입했다는 산출 근거가 명확히 나오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한테 산출 근거를 내지는 않았고 그것은 국제사회에, 러시아 쪽에서 발표한 내용……

○황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 내용 중에는 어떠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얼마얼마 썼다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렇게……

○황영철 위원 그렇게는 안 나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상세한 내역을 내지는 않습니다.

○황영철 위원 안 나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황영철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되는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얼마가 투입되고 얼마를 할 예정이고. 오늘도 장관님께서는 13조, 1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12조……

○황영철 위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진선 조직위원장은 얼마 전에 9조 6000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부분이 도로, 철도, 인프라에 대한 그 금액 차이입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SOC에 대한 투자를 전체 투자비용에 포함시켜서 산출할 거냐 아니냐 등등 해서 매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거나 또 어떤 논쟁이 있을 때마다 '얼마를 투입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옳은 지적이십니다.

○황영철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앞 질문에서도 배후도시와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 평창 배후도시와 관련되어서 기초자치단체들이 이 배후도시의 역할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가보고 싶어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인 횡성에서 배후도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만 지역활성화가 될 것이냐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방문단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려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하잖아요. 대사관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 또 인원 규모에 비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장관께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배후도시들이, 몇 개의 배후도시들이 이런, 실질적으로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낼 테니까 큰 예산 걱정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문광부가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 해 주고 케어 해 주면 저는 굉장히 좋은 방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조직위원회와 상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 주시지요. 그래 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매번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논의할 때마다 일부로부터 아직도 남북 분산 개최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나와요. 이게 전체 틀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모 위원님이 '금강산에서 개회식을 하자'라는 것을 이렇게 털커덕 내놓거든요. 이런 주문을 받을 때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까 공식 개회식을 분산 개최하자라는 의견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지금 IOC 입장에서 분산 개최는, 더구나 북한과 우리나라는 나라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국가별 분산 개최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 평화 올림픽으로서 좀 승화시키자라는 취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찾아 봐야 될 문제이지 아직도 이런 분산 개최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 상황 파악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한 진단으로부터 정확하지 못한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으면 오히려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됐다고 보고 그런 입장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정부에서 수차례 분산 개최는 불가능하다라는 원칙을 말씀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황영철 위원 오히려 강원도 입장에서 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대경기장을 포기한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컴팩트한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 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유치하고 났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의 분산 개최 논의는, 저는 정말 분산 개최 할 수 있다면 포기한 자치단체에다 경기 유치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참고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소치하고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저는 생략하고요.

제가 우리 장관님을 뵐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좀 제 지역구와 관련된 일들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광명에 경륜장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백재현 위원 그리고 하남에 경정장 있는 것도 아실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백재현 위원 지난 며칠 전에, 2월 28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정장에는 경륜장 장외발매소를, 경륜장에는 경정장 장외발매소 설치하는데 승인해 줬다는데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 부의……

○백재현 위원 2월 28일자로 문광부에서 승인해 줬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에서는……

○백재현 위원 승인할 때 법적 검토를 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내용 알고 있고요. 다시 지금……

○백재현 위원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다시 지금 조정하라고 지시를……

○백재현 위원 이게 경정장이나 경륜장을 설치할 때는 전부 그린벨트 허가사항이어서 그린벨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넣어 가지고 간신히 풀어 가지고 이것 지은 거예요. 제가 시장 때 경륜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외발매소는 어디에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다시 조정하라고 지금 지시를……

○백재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승인을 해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지자체하고 협의도 하고 정상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곳이라도 그것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지자체도 속이고 거기 있는 정치인들 다 속이고 감쪽같이 해 놨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분들 징계할 용의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다시 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재현 위원 취소했다는 얘기, 지금 폐쇄한 얘기는 들었어요. 저는 이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직원 징계해야 한다고 봐요. 법적 근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자체에 협의도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이것은 행정의 불신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것은 반드시 조치하세요.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위계질서가 서고 잘못된 법령을, 그렇게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법도 제대로 검토를 않고? 이것 장외발매소가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데, 사행심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것 취소를 정확

히 하시고 매듭을 잘 지으세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직원들 문책하고요. 그래야만 이제 그런 사례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금 하남이나 광명 같은 경륜장이 들어옴으로써 덕 보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레저세가 들어와요. 그 레저세가 있는 곳하고 없는 도시하고 똑같다는 사실 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경륜장 내의 100% 매출액에 대해서 72%가 환급금이고 거기의 16%가 세금 아니에요, 레저세 10%, 교육세 4%, 농특세 2%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12%를 수득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환금이라든가 레저세, 교육세, 등록세와 관련되어서는 방법이 없을 거고……

지금 각 지자체마다, 하남이나 광명에 그것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왜냐하면 그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혜택이, 그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장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득금 12% 중에서 그 해당 있는, 지자체에 있는 것을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제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우리 장관하고 언제고…… 우리 안행부장관한테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결국은 그런 혜택을,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일어나서 결국 폐쇄조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있음으로써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재정보조금 교부하는 방법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것은 안행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것도 안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내가 수없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같으면 규칙을, 조례로 정해서 좀 반영을 하겠다는 답까지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수득 금액에서 좀 조정을 하세요. 수득 금액 이렇게 쓰잖아요, 체육진흥기금에 40%, 육성기금 19.5%, 지방재정 지원 10%, 중소기업기금 4%, 문화예술기금 24.5%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에 지방재정 지원금이라도 확실하게 더 넣든가 뭔가 해서 직접 인센티브 제도를 주지 않으면 광명 경륜장이나 하남 경정장은 폐쇄 위기가 언젠가는 옵니다, 시간이 문제지.

저부터도 유치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때 시장으로서 유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후회해요. 그리고 시민단체 주장이 맞다고 저도 같이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제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백재현 위원 혹시 더 의심나거나 모르면 실무국장을 보내세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무슨 말씀이신지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제도적으로 이거를 보완해 주지 않으면 가까운, 이삼년 안에 폐쇄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처음부터…… 유치가 좀 잘못됐네요. 처음에 유치할 때는 그 시설이 문화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도 그런 용도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재현 위원 그런데 그것 시작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하게 돼 있던 거를 금요일 날을 또 슬쩍 늘렸어요. 경정은 수·목 합니다마는.

어쨌든 제도적으로 그게 있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돌아가는 제도로 바꿔 주지 않으면 폐쇄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장관님, 정말 신중하게 정책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잘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열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윤 예,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오전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정상화, 비정상화 말씀하셨고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가맹단체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체육회장님, 저는 사실 바이애슬론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한 1년 동안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맡아 놓고 한 6개월 또 기다렸거든요. 그랬는데 나름대로 책임감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그래도 정치하시는 분이 혹시 좀 더 부족하고 원활하지 못한, 협회의 일을 하시면서 발전이 있는 건지 후퇴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연맹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저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협회 맡는 걸로 돼 있고 대부분 또…… 하고 싶어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옥석도 좀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지난 정권에서도 야당 의원들께서도 정권을 잡았을 때도 여러 분들이 사실은 단체장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옥석을 좀 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장관님, 요즘 정상화, 비정상화 해서 여러 가지 경기단체, 감독이 됐든 또 단체장이 됐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논란도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염동열 위원 그런데 저는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취약한 종목을 사실 우리 대기업들이 많이 맡아 왔어요, 양궁이라든가 또 빙상이라든가. 역대 올림픽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종목들에서 금메달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대기업들이 단체를 맡아서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가 하나가 되고 열광하고 있고 가장 애국심을 느낄 때가 사실 스포츠 할 때고 또 그것이 금메달을 딸 때에는 더더욱 그 희열감을 아주 임팩트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스포츠인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염동열 위원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해서, 취약한 종목에 투자를 해서 사실 우리나라 양궁이라든가 빙상이라든가…… 나는 김연아 선수도 그런 선상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도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 굳이 정치를 한다, 또 대기업이 스포츠단체를 한다 해서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옥석을 가려서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옳은 말씀입니다.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수들을 키우고 좋은 성적을 내고 하는 데 상당히,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동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키협회 한 분 그만두시고 승마협회도 그만뒀지 않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워크아웃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업들이 스포츠단체의 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워크아웃이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 우리 비인기 종목, 취약 종목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해서 이런 부분은 국민적으로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올림픽 배후도시, 제가 1년 6개월 동안 많이 말씀도 드렸고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번에 특구 위원단도, 추진단도 3명이 구성이 돼 있지요.

그런데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디자인, 도시 설계·재생, 도시의 전문가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올림픽을…… 올림픽 바깥의 더 중요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하는 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관님, 이거는 잘 안 됩니까?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니요,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디자인이나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전체를 조정하고 자문하고 하는 그런 역할은 분명히 할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선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나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가령 평창 같은 경우에 올림픽이 열

리는 가장 핵심 지역인 대관령면의 도시 공간 조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인근 지역의 환경정비, 지자체가 우선 본격적으로 나서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염동열 위원 바로 그러한 점에서…… 강릉시·정선·평창이 개최 시·군이고요. 강원도 또 조직위, 이게 한 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느낀 게 전혀 따로 하고, 따로국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의 범위를 지나서 1촌-1품-1식-1체-1감 운동이라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건 뭐냐, 한 지역의 볼거리를 만들자, 축제거리를 만들자, 한 지역의 특색 있는 유명한 음식을 만들자, 그리고 명품을 만들자 이런 운동을 제가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최 도시 지자체 그리고 주변, 횡성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인근의 도시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몸으로 이 연구가 되고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지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줬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어쨌든 배후도시는 강원도 관광은 물론 한국 관광의 터닝 포인트의 아주 핵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림픽 지역의 하나의 관광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관광이 이제 2000만, 3000만 시대로 가는 중요한 계기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올림픽이 한 보름 정도, 장애인올림픽까지 하면 한 한 달 정도 잡는 국제행사지만 그 국제행사만을 목표로 경기장과 무슨 시설을 해 놓으면 그거는 나중에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배후도시를 통해서 그런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혜택이 분산되고 나중에 유지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염동열 위원 올림픽 경기장도 그 자체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용역이 지금 빙상경기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폐회식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됩니다마는 오히려 간접적인 원인이 훨씬 더 큰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이 오게끔,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하면 자동적으로 각종 경기장은 사후관리가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김재윤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제가 법안소위를 하도 왔다 갔다 해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김재열 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빙상연맹 제소 관련해서는 아마 앞의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그동안의 경과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 비공개 부분은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저희가 ISU 쪽에 제소를 했고요. 그쪽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다음에 저희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는 대한체육회 그리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특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비공개 보고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유진룡 장관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월 1일 날 김영수 아시안

게임조직위원장께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셰이크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 OCA 회장하고 만나서 스포츠정신에 입각해 북한이 참가하는 퍼펙트 인천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뜻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북한선수단이 올 경우에 대비한 입출국, 수송, 숙박, 의전 등 분야별 종합계획과 백두산 성화 채화, 남북공동응원단 구성도 현재 조직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시적인 어떤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부산아시안게임도 엔트리 마감일을 불과 55일 앞둔 8월 4일 날, 그러니까 개막을 55일 앞둔 8월 4일 날 대회 참가가 합의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북한선수단의 참여가 아시안게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도 높이고 우리 남북관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과 의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북한이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계속 그런 희망을 얘기하는데 북한 쪽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관석 위원 아니, 북한 측 입장도 있지만 통일부는 또 지난 4일 날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하면서도 단일팀이나 공동입장, 공동응원, 단일기 사용, 합동공연은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또 엉뚱한 입장을, 그것도 통일부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통일부에서 발표할 만한 이런 내용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니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제경기대회에 참여하는 건 얼마든지 적극 환영이지만 그 참여하는 방식과 응원 방식 등등은 어떤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 사회적 합의의 분위기를 앞장서서 또 선도해 나가는 것도 담당 부처나 통일부나 이런 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된 다음에 대회가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면서, 오히려 선도하고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이렇게 현상만 보고 '되면 하겠다' 이런 식의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이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부 입장에서도 이 대회가 좀 더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게 북한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뭐 뭐는 안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타 부처의 노력도 필요한 것을 적극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윤관석 위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부분 아무튼 정부부처끼리 다시 여러 차례 회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팀, 공동입장, 공동응원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례와 지금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어떤 사건들을 감안한, 국민정서를 감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아무튼 사회적 합의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논의를 해 나가겠다 하면 될 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버리면 그다음에 논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분위기를 부처 내에서도 또 청와대나 총리나 이쪽에도 우리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장 김재윤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진룡 장관님, 대한체육회 김

정행 회장님, 대한빙상경기연맹 김재열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권은희	김기선	김재윤	김 현
백재현	안민석	염동열	윤관석
윤호중	이에리사	이재영	이한성
최동익	황영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 진 대
전 문 위 원	박 명 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진 룡
대한체육회장	김 정 행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 재 열